

# 개학 시즌 학교급식도 ‘살충제 계란’ 불똥

###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사용 중단 공문 대체식단 짜기 고심...장기화 땀 급식 일정 차질 빚을 듯

광주·전남 학교급식에도 ‘살충제 계란 파문’의 불똥이 튀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을 안내하고 계란을 급식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에서는 계란 납품 중단을 요청하고 계란 들어간 반찬과 음식을 빼는 등 대체식단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전남대학교 학생식당도 이날부터 계란 메뉴를 빼는 등 대학가 식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 초·중·고교 등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학교급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국산 계란의 살충제 성분검출 파문과 관련해 ‘해당농가의 계란이 일부 개학을 앞둔 학교에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대상 학교는 광주(327곳)·전남(875곳) 초·중·고교 등 1202곳이다.

공문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선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해 달라’고 적혀 있다.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안내했다.

이들 교육청은 이날 개학한 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선 학교급식에 계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조치는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급식에 계란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급식에 계란 사용을 중단토록 한 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들이 무언의 한 영 농조합과 계약을 맺은 뒤 60~70% 가량의 계란을 공급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 중·고교가 개학을 맞이하면서 각급학교는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현재 개학한 학교는 광주 74곳(중학교 11곳·고교 63곳), 전남 170곳(초교 4곳·중학교 84곳·고교 82) 등 모두 244곳이다. 이들 교육청은 다음주부터 초등학교까지 개학을 함에 따라 계란 대체 식재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 신광중 최혜영 영양사는 “하루에 한 번씩 식재료를 받고 있다. 우선 계란을

납품하는 업체에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다음 주 중 딱딱비 요리에 계란을 쓰려고 했는데 계란을 뺀 계획”이라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메뉴를 짜고 있는데, 계란·계란말이로 정해진 메뉴는 교사들과 상의해 다른 메뉴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를 계기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류농약과 원산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 학교급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계란 제공 안해요”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16일 전남대 구내식당이 계란 메뉴 제공을 중단한 뒤 이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적합 판정 받은 전남 양계농가 63곳 계란 유통 재개

### 검사 결과 증명서 부착하고 판매 방향형 프리미엄 계란은 주문 늘어

나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엔트린이 검출됐지만, 전남지역 전체 97개 살충제 검출조사 대상 양계 농가 가운데 63곳(64.9%)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들은 이날부터 계란 유통을 재개했고, 지역 유통업체도 정부의 전수검사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하루 계란 생산량 총 280만개 중 70%가량인 200만개의 유통이 재개된 것이다.

지난 15일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됐던 광주·전남지역 소재 농협하나로마트는 16일 오후부터 전수검사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품종의 계란에 한해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담보된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켜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는 게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수검사 결과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도 판매대에 써붙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이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에 대한 판매를 재개했다. 편의점 체인 업체도 계란이 첨가된 가공식품 등을 제외하고 일단 ‘생란’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과점이나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업체들은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제과, 음식점에서는 이날 안전하다고 통보받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를 부착하거나, SNS 채널을 통해 게시하는 등 “우리 가게에서 쓰는 계란은 안심

해도 된다”며 자체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계란 불신’이 확산하면서 산란계를 방목형태로 키우면서 생산된 계란을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일명 ‘프리미엄 계란’ 양계농가에는 오히려 주문이 몰리고 있다.

판매 중단으로 계란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입 자체가 어려운데다, 이번 사태로 계란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으면서 안전하게 먹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계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프리미엄 계란 생산농가는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질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프리미엄 계란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여수서 탱크로리 전복

### 화학물질 500ℓ 유출

16일 새벽 4시30분께 여수시 해산동 나들목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18t 탱크로리가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운전기사 권모(48)씨가 얼굴 등을 크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유해화학물질 500ℓ 가량이 도로에 유출돼 119구조대원들이 흡착포 등으로 방제 활동을 펼쳤다.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단열재·보온재 재료로 쓰이는 MDI(메틸렌디페닐디소시아네이트)로 가열 시 유해 가스가 발생해 기침·호흡곤란·피부 가려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도심 한복판서 여성은 맞고 있는데... 잔인한 데이트폭력 방관한 구경꾼들

### 피해자 핸드백 훔쳐 도주도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여성이 애인에게 잔인한 폭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손길을 내민 시민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흘린 손가락도 누군가 훔쳐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정한 세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모(59)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에서 애인 김모(여·59)씨의 얼굴·배 등 온몸을 구타하며 뒤쫓았다.

김씨는 먹자골목에서 50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주씨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까지 세 차례 만났던 사이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김씨가 타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짓밟아 빼가지 부러뜨렸다.

당시 주변에는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를 몰고 귀가하는 시민 수 명이

있었지만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씨는 112 상황실에 4통의 신고 전화가 잇따라 접수되는 동안 구경꾼 사이로 도주했다.

이 사이 인도에 있던 김씨의 핸드백은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집어갔다. 주씨는 3주거량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광주의 화상경마장 앞에서 잠복장인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범원은 흉기까지 휘둘렀던 주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너무 과격해서 목격자들이 김씨를 도우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더 빨랐다면 주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경찰은 김씨의 핸드백을 집어간 승용차 운전자의 행방도 쫓고 있는데 분실센터 등을 통해 돌아온 소지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세월호 침몰 해지면 2차 수중수색 개시

### 진흙 퍼올리는 장비 투입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정부가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을 벌인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16일 “이르면 오늘부터 다음달까지 45일 동안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지점에 진흙을 퍼 올리는 장비를 투입, 해저면 토사를 퍼 올려 작업선에서 진흙과 유류품 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인양 후에도 유해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잠사 해역 수중에 설치한 사각 펜스 내를 수색한 바 있다. 수색은 계약에 따라 상하이셀비지가 지난 4월 9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했다.

당시 수중 펜스 내 40개 일반구역·2개 정밀구역·사각 펜스 테두리 등을 수색하고 소나 수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5월 5일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로 확인된 뺏조각 1점과 유류품 6점을 수습했다.

고창석 교사의 유해가 선체 밖에서 발견되자 미수습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수습본부는 당초 철거 예정이었던 철재펜스를 그대로 두고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해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호프집서 동종업계 육하자 발끈...주먹질한 이삿짐센터 직원



○...광주의 한 호프집에서 동종업계를 육하자를 듣고 60대 남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는데, 백씨는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따지러 갔다가 강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핫김에 강씨를 때렸다고 진술.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삿짐센터 직원 백모(33)씨는 16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A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강모(60)씨

가 동종업계에 대해 육하자를 하자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

○...경찰은 이들이 싸우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는데, 백씨는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따지러 갔다가 강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핫김에 강씨를 때렸다고 진술.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